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조혜덕, 조성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f Music Major University Students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Hye-Deok Cho, Sung-Je Cho*

Division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전공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음악전공 대학생은 타전공대학생들보다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대상은 음악전공 대학생 1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 빈도분석, 상관분석, 기술통계, 회귀분석,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하위요인인 관계만족과 인식만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53.7% 설명력을 확인되었다. 둘째,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 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악전공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대학교에서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 사이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보였다. 이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 수준을 향상 하는데 전공만족도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 향상을 위한 실천적 개입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music major university students' satisfaction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the major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e study was prompted by the fact that the employment rate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music was lower than that of students from other major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63 music major students at a university.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verification on the SPSS 23.0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perception satisfaction, the sub-factor of major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Satisfaction with the major was confirmed to have 53.7% explanatory power i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effect of satisfaction with the major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erefore,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music major university students was greatly influenced by satisfaction in the major, and henc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educational programs that can increase this satisfaction in universiti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satisfaction of music major university students directly affect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has an indirect effect through self-efficacy. To promote satisfac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students with education programs to strengthen their self-efficacy and career counseling services. It is believed that this study would provide the basic data for preparing practical intervention plans to improve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music major university students.

Keywords : Music Major University Student, Major Satisfacti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Self-efficacy, Interpersonal Satisfactionion

*Corresponding Author : Sung-Je Cho(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email: chosj715@daum.net

Received January 16, 2024

Accepted March 8, 2024

Revised February 5, 2024

Published March 31, 2024

1. 서론

글로벌 경제침체로 취업시장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졸업 후 미취업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1]. 취업은 대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인생에서 중요하다. 또한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은 취업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다[2]. 한편 대학생들의 취업문제는 모든 전공에 적용되지만 전공별 취업률에 차이가 크다[3]. 그중 음악전공 대학생의 경우 타 전공 대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렵고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 한편 음악전공 대학생들은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준비행동이 중요하다. 특히 취업목표가 뚜렷한 경우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5]. 따라서 음악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은 졸업 후 취업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취업준비행동은 '취업을 목표로, 최종적으로 희망하는 직장에 취업하기까지의 구체적인 능동적인 준비 행동'이다[6]. 또한 박다운(2019)은 취업준비행동을 '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관리, 정보탐색, 직접적 구직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화한 체계적 취업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7]. 본 연구에서는 취업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은 '예비적 취업준비행동'과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으로 구성하였다[8].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체능전공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5], 전현진(2015)은 미용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9], 박인실과 김미정(2015)은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률과 관련된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10], 이지현(2020) 외식 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11] 등이 진행해 왔지만, 음악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미용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들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공적인 취업으로 도와주고 있다[10].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볼 때,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준비행동의 영향요인인 전공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은 취업 문제 해결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전공만족도는 '대학생들이 전공분야를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는 만족도'이다[12]. 이동재(2004)는 전공만족도

를 '전공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준의 주관적 행복과 개인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결합 된 결과물'이라고 정의하였다[13]. 또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장래희망, 취업에 대한 기대에서 출발하고 자신이 느낀 전공에 대한 견해로 설명할 수 있다[14]. 한편, 전공만족도는 전공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경험을 의미하는데 이에 미치는 영향은 학과, 학교에 대한 만족과도 연계되어 향후 취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15].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를 '교과만족', '수업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의 네 가지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16].

전공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공만족도는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17]. 또한, 전공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한편, 전공만족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전공만족도가 긍정적인 취업준비행동을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10].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볼 때,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전공만족도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기효능감이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8].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19]. 홍현경(2012)은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어떠한 문제에 마주하였을 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하였다[20].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을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업도전감'으로 구성하였다[21].

대학생들의 심리 변인인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서학전공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취업준비행동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자기효능감은 취업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24]. 따라서 대학생들의 심리적 변인인 자기효능감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매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일반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17], 자기효능감이 취업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에 관한 연구[24], 비서학전공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22]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예술계열 전공자들의 경우 대학 시절 체계적인 진로설정 및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음악전공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을 향상할 수 있는 개입 방향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취업 문제 해결 방안 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3년 11월 23일까지 음악전공 대학생 16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는 사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는 총 163부 중 불성실하게 답변한 34부를 제외한 129부를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 5문항, 전공만족도 18문항, 자기효능감 15문항, 취업준비행동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학년 등으로 구성되어 조사하였다.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엄태순[16]이 사용한 전공만족도 측정 도구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교과만족(5문항), 수업만족(4문항), 관계만족(5문항), 인식만족(4문항)이며, 설문지 문항은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취업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최인영[8]이 사용한 취업준비행동 측정 도구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예비적 취업준비행동(5문항), 본격적 취업준비행동(6문항)이며, 설문지 문항은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이영희[21]가 사용한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자신감(5문항), 자기조절 효능감(5문항), 과업도전감(5문항)이며, 설문지 문항은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2.3 신뢰도

각 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공만족도의 신뢰도를 보면, 엄태순[16]의 기존연구 신뢰도는 교과만족 .932, 수업만족 .935, 관계만족 .935, 인식만족 .93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전공만족도의 신뢰도 검증결과, 전공만족도의 신뢰도는 하위요인인 교과만족 .938, 수업만족 .933, 관계만족 .930, 인식만족 .958이며, 전체 신뢰도는 .954으로 신뢰도 면에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취업준비행동 척도의 신뢰도를 보면, 최인영[8]의 기존연구 신뢰도는 본격적 취업준비행동 .911, 예비적 취업준비행동 .8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취업준비행동의 신뢰도 검증결과, 취업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본격적 취업준비행동 .972, 예비적 취업준비행동 .981이며, 전체 신뢰도는 .968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Table 1.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Major Satisfaction	Curriculum satisfaction	5	.938
	Class satisfaction	4	.933
	Interpersonal satisfaction	5	.930
	Perception satisfaction	4	.958
Self-efficacy	Self-confidence	5	.931
	Self-regulation efficacy	5	.920
	Task challenge	5	.913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Preliminary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4	.981
	Full-fledge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5	.972

자기효능감의 신뢰도를 보면, 이영휘[21]의 기존연구 신뢰도는 자기조절 효능감 .832, 자신감 .896, 과업도전감 .87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기효능감의 신뢰도 검증결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 효능감 .920, 자신감 .931, 과업도전감 .913이며, 전체 신뢰도는 .927로 신뢰도 면에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통계 분석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패키지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 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s α 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음악전공 대학생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과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Baron과 Kenny[25]가 제시한 조건으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매개 효과의 유의성은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음악전공 대학생의 성별은 여자가 104명(80.62%) 남자가 25명(19.38%)으로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음악전공 대학생의 학년에서는 2학년 학생 94명(72.87%)으로 가장 많았으며, 4학년 학생이 14명(10.85%), 1학년 학생 11명(8.53%), 3학년 학생 10명(7.75%) 순서로 나타났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Total(n=129)	
		Frequency	Proportion(%)
Gender	Male	25	19.38
	Female	104	80.62
Grade	Freshman	11	8.53
	Sophomore	94	72.87
	Junior	10	7.75
	Senior	14	10.85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음악전공 대학생의 주요 변수 전공만족도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교과만족(M=3.515)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업만족(M=3.424), 관계만족(M=3.394), 인식만족(M=3.291) 순으로 평균 점수로 나타났다.

음악전공 대학생의 주요 변수 자기효능감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평균 점수는 자기조절 효능감(M=3.324)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업도전감(M=3.034), 자신감(M=2.878) 순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음악전공 대학생의 주요 변수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취업준비행동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예비적 취업준비행동(M=3.309)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본격적 취업준비행동(M=3.138) 순으로 평균 점수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음악전공 대학생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3와 같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n key variables

Sortation		N	M	SD
Major Satisfaction	Curriculum satisfaction	129	3.515	.861
	Class satisfaction	129	3.424	.879
	Interpersonal satisfaction	129	3.394	.837
	Perception satisfaction	129	3.291	.857
Self-efficacy	Self-confidence	129	2.878	.827
	Self-regulation efficacy	129	3.324	.752
	Task challenge	129	3.034	.822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Preliminary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129	3.309	.724
	Full-fledge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129	3.138	.746

3.3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취업준비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전공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은 다소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715, p<.001$). 또한, 자기효능감과 취업준비행동은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r=.647, p<.001$). 한편,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은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r=.610, p<.001$).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변수 간의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4과 같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Sortation	Major Satisfaction	Self-efficacy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Major Satisfaction	1		
Self-efficacy	.610***	1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715***	.647***	1

*** $p<.001$

3.4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음악전공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Table 5.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f Music Major University Students on Self-efficacy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Major Satisfac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VIF
		B	Standard Deviation	β		
Self-efficacy	Constant	1.237	.214		5.776***	
	Curriculum satisfaction	.049	.131	.060	.378	5.302
	Class satisfaction	.051	.159	.064	.325	8.119
	Interpersonal satisfaction	.226	.163	.268	1.384	7.804
	Perception satisfaction	.327	.105	.398	3.108**	3.408

$R^2=.402$ Adj. $R^2=.383$ $F=20.863$ $P=.000$, $D-W=2.107$

** $p<.01$, *** $p<.001$

대한 전공만족도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값이 .402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40.2%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2.107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 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공차 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의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 ($F=20.863, p<.00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인식만족($\beta=.398, p<.01$) 요인은 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인 교과만족($\beta=.060, p>.05$), 수업만족($\beta=.064, p>.05$), 관계만족($\beta=.268, p>.05$) 요인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하위요인인 인식만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과 같다.

3.5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음악전공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전공만족도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값이 .537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53.7%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804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 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공차 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의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36.009, p<.00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관계만족($\beta=.510, p<.01$), 인식만족($\beta=.229, p<.05$) 요인은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인 교과만족($\beta=.278, p>.05$), 수업만족($\beta=.254, p>.05$) 요인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하위요인인 관계만족과 인식만족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f Music Major University Students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Major Satisfac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VIF
		B	Standard Deviation	β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Constant	1.042	.188		5.539***	
	Curriculum satisfaction	.227	.115	.278	1.973	5.302
	Class satisfaction	.203	.139	.254	1.459	8.119
	Interpersonal satisfaction	.429	.143	.510	2.991**	7.804
	Perception satisfaction	.188	.092	.229	2.030*	3.408

R²=.537, Adj. R²=.522 F=36.009 P=.000, D-W=1.804

*p<.05, **p<.01, ***p<.001

3.6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Baron과 Kenny[25]가 제시한 조건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전공만족도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인으로 전공만족도, 매개 변인으로 자기효능감, 종속 변인으로 취업준비행동으로 두고,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3단계에서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 효과의 유의성은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효능감에 의해 매개되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 Fig. 1과 같다.

Table 7. Mediated Effects of Self-efficacy on the Impact of Major Satisfaction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Step	Variable	β	t	F	R ²
1	① ⇒ ②	.534	8.679***	75.327***	.372
2	① ⇒ ③	.624	11.521***	132.744***	.511
3	① ⇒ ③ ② ⇒ ③	.446 .334	7.017*** 4.607***	87.552***	.582

Sobel test: Z=3.307, P=.001

① Major Satisfaction, ② Self-efficacy,

③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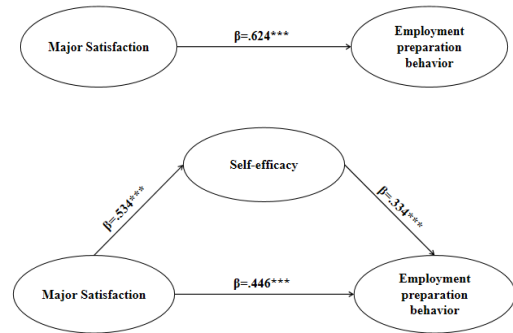


Fig. 1. Mediated Effects of Self-efficacy on the Impact of Major Satisfaction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p<.001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전공만족도가 매개 변인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beta=.534$, $p<.000$)이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전공만족도가 종속 변인인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beta=.624$, $p<.000$)도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 변인인 전공만족도와 매개 변인인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투입되어 종속 변인인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았을 때, 매개 변인인 자기효능감의 영향력($\beta=.334$, $p<.000$)이 유의하면서도 전공만족도의 영향력($\beta=.624$ 에서 $\beta=.446$)이 감소하였으므로, Baron과 Kenny[25]의 매개 효과 검증 절차를 모두 만족하였다. 또한, 3단계에서 전공만족도의 영향력이 아직 유의미하므로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알 수 있다. Sobel test 결과, 전공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3.307$,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 하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53.7% 설명력을 확인되었다. 전공만족도 하위요인 중 관계만족과, 인식만족은 취

업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인 관계만족과, 인식만족 요인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9,17]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전공만족도는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2]는 연구결과가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만족도가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공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과 취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 사이에서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다[26,27]는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음악전공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높이기 위해 취업 준비 교육 과정을 개설이 요구된다. 한편 취업 준비 지도프로그램도 개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음악전공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교과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는 전공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해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음악 관련 기업체의 동향을 반영한 실무 중심의 강의나 프로젝트,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취업 준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실제적인 능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으며 취업준비행동을 향상할 수 있다.

둘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을 향상하는데 전공만족도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증진을 위해서는 자기효능감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학습과

역량 향상을 중점으로 두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음악전공 대학생들에게 취업 지원 및 진로상담 서비스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자기의 취업 준비 능력 개발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요구된다. 이러한 취업 지원 및 진로상담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고, 진로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향상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음악전공 대학생들에 국한하여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 집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외에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을 확인하고 변인 간의 심층적인 영향력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J. S. Feng, X. L. Guo, Q. Zhang, "Analysis of the employment status, difficulties and countermeasures of college students under the background of normalized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Nei Jiang Ke Ji*, Vol.43, No.01, pp.35-36, 2022
- [2] J. W. Kim, S. S. Park,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6, No.3, pp.123-141, 2013. <http://www.riss.kr/link?id=A104448023>
- [3] H. H. Jung, J. H. Choi, "Career Choice and Curriculum Applicability of Music Majors in Korean Universiti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42, No.2, pp.161-183, 2013. <http://www.riss.kr/link?id=A104671621>
- [4] J. J. Lin, "A Study on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Music", Ph.D dissertation, Sehan University, Yeongam, Korea, pp.1-4, 2023. <http://www.riss.kr/link?id=T16688372>
- [5] Y. M. Lee, S. Y. Lee, J. Y. Lim, "An Analysis of Art, Music, Sports and Dance Graduates' School-to-Work Transition Preparation and Employment Outcomes", *Social Science Research*, Vol.52, No.1, pp.1-28, 2013.
- [6] M. G. Suk, "The relationships among job-seeking anxiety,

- job search self-efficacy,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mong preparative college graduates : a multi-group analysis across employment status, gender, location of university*", Ph.D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pp.28-30, 2020.
<http://www.riss.kr/link?id=T15482505>
- [7] D. E. Park, "The effects of the job-seeking anxiety,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pp.33-35, 2019.
<http://www.riss.kr/link?id=T15361084>
- [8] I. Y. Choi, Y.H.Cho,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Reality Cognition of Major, Envy, Anxiety, Career Goal Diversit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Aviation Service majored Students",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Vol.100, pp.699-723, 2020.
DOI: <https://dx.doi.org/10.18604/tmro.2020.24.7.33>
- [9] H. J. Jeon, "A Study on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e and Major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esthetics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21, No.6, pp.1212-1223, 2015.
<http://www.riss.kr/link?id=A101758953>
- [10] I. S. Park, M. J. Kim, "Influence of Job Selection Motive and Occupational Values on Major Satisfaction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in Case of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Airline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29, No.6, pp.139-151, 2015.
<http://www.riss.kr/link?id=A102008836>
- [11] J. H. Lee, "Effect of Major Choice Motives and Major Recognition on Job Preparation Behaviors in Case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Foodservice Related Departments",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Vol.32, No.4, pp.191-213, 2020.
DOI: <https://doi.org/10.31336/JTLR.2020.4.32.4.191>
- [12] Nauta, M. M., "Asses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Academic Majo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15, No.4, pp.446-462, 2009.
- [13]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p.7-11, 2004.
<http://www.riss.kr/link?id=T9498289>
- [14] L. Zhang, "Influences of Major-satisfaction Levels and Borderless Career Attitudes of Physical Education College Students on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Preparation Actions", Ph.D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Gyeongsan, Korea, pp.5-7, 2022.
<http://www.riss.kr/link?id=T16529585>
- [15] U. S. Chang, "The Relationship among Major Satisfaction, Learning Flow,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Maturity of Students Majoring in Contemporary Music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Seokyeong University, Seoul, Korea, pp.25-30, 2020.
<http://www.riss.kr/link?id=T15684680>
- [16] T. S. Um, "The Effects of Volunteer Participation Motivation on Activity Concentration,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f Beauty Major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Nambu University, Gwangju, Korea, pp.17-36, 2023.
<http://www.riss.kr/link?id=T16844432>
- [17] Y. J. Han,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rs of university students", Ph.D dissertation, Kyungsoong University, Busan, Korea, pp.119-124, 2014.
<http://www.riss.kr/link?id=T13390961>
- [18] J. H.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Career Determination Self-Efficacy, Job Preparation Behavior, and Learning Achievement through Arts and Sport Capstone Design Classes", *The Korean Journal of Sport*, Vol.21, No.2, pp.315-325, 2023.
DOI: <https://doi.org/10.46669/kss.2023.21.2.029>
- [19] E. J. Jeong, "The effects of emotional leadership upon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h.D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Suwon, Korea, pp.32-36, 2015.
<http://www.riss.kr/link?id=T13732054>
- [20] H. G. Hong, "The effects of self-efficacy on job embeddedness, innovation behaviors,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Ph.D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pp.8-16, 2012.
<http://www.riss.kr/link?id=T12639401>
- [21] Y. H. Li,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and Entrepreneurial Behavior", Ph.D dissertation, Dongbang Culture University, Seoul, Korea, pp.57-59, 2021.
<http://www.riss.kr/link?id=T15787685>
- [22] B. H. Jeong, J. H. Oh,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Occupational Values, and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on Job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cienc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11, No.2, pp.131-152, 2021.
DOI: <https://doi.org/10.35273/jec.2021.11.2.006>
- [23] J. H. Lee, S. H. Kim, "The Effect of Satisfaction of the Major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Vol.14, No.2, pp.77-96, 2018.
DOI: <https://doi.org/10.35637/klehrd.2018.14.2.004>
- [24] E. H. Cho, H. J. Moon,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Job-Seeking Anxiet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with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19, pp.693-716, 2019.
<http://www.riss.kr/link?id=A106394507>

- [25]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26] E. J. Yang,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pplied Music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ion Effect of Learning Flow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Vol.15, No.4, pp.55-74, 2017.
<http://www.riss.kr/link?id=A104985205>
- [27] M. J. Chung, I. H. Park, "The Effects of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Vol.27, No.1, pp.213-232, 2015.
<http://www.riss.kr/link?id=A100430034>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 1997년 2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전자계산학과 (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 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

<관심분야>

문화콘텐츠, 교육학, 데이터베이스

조 혜 덕(Hye-Deok Cho)

[정회원]



- 2016년 7월 : 중국 하얼빈공업대학교 기계전자공학과 (공학석사)
- 2022년 9월 ~ 현재 : 동방문화대 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박사과정
- 2022년 3월 ~ 현재 : 중국 강서신 에너지과학기술대학 석좌교수

<관심분야>

교육학, 문화콘텐츠